

부산시, 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대규모 출정식·응원전 ‘열기’

개최지 발표 일주일 전
출범식으로 마지막 결의 다져
발표 당일, 응원전 마련도

“넘버원, 부산 이즈레디(No.1 BUSAN is Ready) 외쳐주세요!”

부산시가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 발표 7일 전인 21일과 당일인 28일,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부산시민과 함께 기원하는 대규모 범시민 응원전을 펼친다.

오는 21일 오후 5시 서면교차로 일원에서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의장 안성민) 주최, 범시민유치위 시민위원회, 범시민서포터즈, 범여성추진협의회, 시민참여연합의 공동 주관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위한 출정식’을 개최한다. 이 행사는 28



부산시가 오는 21일과 28일 2030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기원하는 범시민 응원전을 펼친다. /부산시

일 제173차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 서 진행될 마지막 2030세계박람회 유

치 경쟁 프레젠테이션(PT) 발표가 있을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부산시민의 유치 염원을 전달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전력투구 중인 기관, 시민단체, 시민 모두가 성공 유치를 위한 마지막 결의를 다지는 개최지 발표 D-7 행사다.

행사는 시민 천여 명이 결집한 가운데 서면교차로를 중심으로 5개의 거점 공간에서 진행되며, ▲오프닝멘트 ▲출정 퍼포먼스 ▲출정 의지 선포식 ▲유치 결집 퍼포먼스 ▲D-7 출정 카운트다운 영상상영 ▲D-50타임캡슐 개봉·낭독 ▲유치 염원 공연 등이 마련된다.

개최지 발표가 있을 28일 오후 8시 30분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는 부산시 주최, 범시민유치위 시민위원회, 범시민서포터즈, 범여성추진협의

회, 시민참여연합의 공동 주관으로 시민 1천여 명이 참석하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성공 유치 시민응원전’이 마련된다. 부산과 파리를 연결해 현지 반응과 투표 결과 등을 생중계하며 현장 분위기를 전달하고, 다채로운 공연과 퍼포먼스로 구성된 열띤 응원전을 펼치며 유치 염원을 현지로 전달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행사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적극 나서주시는 시민단체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추진력 삼아 우리시와 정부는 마지막까지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며 반드시 좋은 결실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전했다.

/부산=장병호 기자

metrobusan1@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고래불해수욕장 전경. /영덕군

영덕군

관광환경 개선에 국비 5억 확보

영덕군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4년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고래불해수욕장과 괴시민속마을(국가민속문화재 제301호) 2개 지점에 대한 관광환경 개선 사업에 국비 5억 원을 확보했다.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 등 이동 취약계층의 관광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공모엔 12개 자치단체 30개 관광지점이 참여했다. /영덕(경북)=김종철 기자 kimjongseol@

의령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추진

의령군은 수질보전과 공중위생 향상을 통한 근린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121억 원을 투자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한다고 14일 밝혔다.

의령군은 의령읍 인근 하수처리구역 확대와 서동행정타운 개발 등 하수량 증가에 따른 사업의 당위성을 역설해 환경부로부터 국비 지원을 확정받아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2026년까지 국비 등 121억을 투자해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 처리량을 하루 5800㎥에서 6900㎥로 1100㎥ 증설하게 된다. /의령(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순천시

여름 여행지 만족도 전남 1위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2023 여름휴가 여행지 만족도 조사’에서 전남 1위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여행 전문 리서치기관 컨슈머사이트는 올해 1박 이상 국내 여름휴가(6~8월)를 다녀왔다고 응답한 1만7,281명을 대상으로 여름휴가지에 대한 만족도와 휴가지로의 추천 의사 여부에 대해 ‘2023년 국내 여름휴가 만족도’를 조사했다. /순천(전남)=전정신 기자 spirit@

영주시

‘국제부품소재산업전’ 참가

영주시는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홍보를 위해 ‘제18회 국제부품소재산업전’에 참가한다.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는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부품·소재 분야 기업 130개 사가 참가해 250개 부스 전시 규모로 진행되며, 기계, 자동차 등 주력 산업 부품 및 금속·화학, 세라믹 등 다양한 소재 분야 제품과 기술을 선보인다. /영주(경북)=김동국 기자 kdq7677@

경북교육청, 내년 예산 5.4兆 편성

전년비 4686억 줄어든 규모
보통 교부금 5714억 감소 원인

경북교육청은 ‘2024년도 예산안(5조 4,541억 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북도의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5조 9229억 원보다 4686억원(7.9%)이 감소한 규모이며, 정부의 세수 여건 악화로 중앙정부 이전수입인 보통 교부금 5714억 원 감소했기 때문이다. 경북교육청은 부족한 재원은 자체 적합한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1323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전략적 재원 배분을 통해 내년도 교육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학교 기본 운영비, 무상급식비, 수학여행과 수련 활동비, 저소득층 졸업앨범비, 교육 급여,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등 교육복지 예산은 전년 수준으로 편성했다.

이번 예산안 편성 방향은 △성장을 지원하는 학생 중심 교육 △따뜻함을

더하는 맞춤형 복지 지원 강화 △미래를 주도하는 디지털 전환 교육 △꿈을 키우는 미래 교육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

경북교육청은 모든 사업에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긴급하지 않은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하고, 업무추진비 부서별 15% 감액, 국외연수 최소화, 외부 자문단 운영 등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을 절감했다고 강조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학교 현장 지원과 아이들의 교육활동에는 아낌없이 투자했다”라며 “경북교육이 세계교육의 표준으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 교육 여건 조성에 차질 없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심의와 예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11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경북=장영우 기자 ycyw57@

경산시, 대구도시철도 하양연장 역명 결정

부호경일대호산대역과
하양대구가톨릭대역 확정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1월 14일 국토교통부, 경상북도, 대구광역시와의 협력 사업인 ‘대구도시철도1호선 하양연장사업’의 신설역사명칭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3727억원으로 2019년 착공해 2024년 초까지 공사를 완료, 7~8개월간의 철도종합시험 운행 등을 거쳐 2024년 말 정식 개통을 목표로 현재 막바지 공사를 추진 중이다. 경산시는 대구광역시 동구에 있는 가칭 H1 정거장을 제외한 경산시 하양읍 부호리와 금락리에 있는 H2 및 H3 정거장의 역명을 선정하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역명을 공모했다.

지난 9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진행된 공모에 신설역사가 위치한 하양읍 주민을 포함한 많은 경산시민이 참여했다. 시민들의 제안 역명 중 인근 대학교 명칭이 포함된 역명이다 수 있음에 따라, 경산시는 하양읍 이장협의회에 역명에 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요청했고, 2023년 11월 13일 개최된 경산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결정했다.

교육도시 경산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는 차원에서 지역명과 학교명이 혼합된 부호경일대호산대역(H2), 하양대구가톨릭대역(H3)으로 최종 결정됐다.

/경산(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



전남 담양군 고서면 한 딸기 재배 시설 하우스에서 농장주 임동만(39)씨가 폭설로 주저앉은 시설 하우스 위에 올라 눈을 치우고 있다. /뉴스

전남도, 겨울철 대설·한파 선제 대응

유관기관 협업 강화·취약계층 지원

전남도가 겨울철 대설·한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안전한 겨울나기 지원에 12억여원을 투입한다.

전남도는 겨울철 자연 재난에 따른 인명피해 제로 달성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남도-유관기관 간 대응계획을 점검을 위한 협업 간담회를 전날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간담회엔 전남도 13개 협업부서와

전남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10개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각 기관들은 재해 발생 시 기관별 역할과 상호 협업방안을 논의했다.

한국도로공사는 폭설 시 고속도로 제설 활동, 한전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 구축, 전남경찰청은 겨울철 자연 재난 대비 교통관리 계획수립 등 유관기관별 겨울철 재난 대비 계획에 대해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협의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울산시, 수소 전기트램 실증운행 시승행사

올해까지 사업비 총 426억 투입

울산시가 14일 울산항역에서 ‘수소 전기트램 실증 운행 시승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수소전기트램 실증사업을 통한 친환경 이동수단(모빌리티) 생태계 구축과 울산시가 도입 예정인 수소트램의 홍보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한 이재의 국회의원, 참여기업 및 공공기관 관계자와 시민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전기트램 소개에 이어, 수소트램 출발 세러머니, 트램 시승 체험, 수소충전 시연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시승 체험에서는 국내 최초로 수소트램이 탑승자 150여 명을 태우고 울산항역에서 삼비

널목까지 왕복 4km 구간을 달렸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청정에너지원 수소전기트램을 국내 최초로 울산에서 시승하게 되어 기쁘다”며 “아울러 향후 도입되는 울산도시철도가 수소 전기트램으로 운행될 예정이라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로 수소트램이 대중교통으로 운행되는 세계속의 수소도시 울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소전기트램 실증사업은 울산시가 지난 2021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전기트램 실증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전담하며 올해 말까지 사업비 총 426억 원(국비 281억, 시비 20억, 민간 125억 원)이 투입된다.

/울산=장병호 기자